

유아학습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의 자기조절, 인지양식,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학습지원행동*

Preschooler's Characteristics, Mother's Beliefs and Involvement According
to Preschool Learning Behaviors*

정태희(Tae Hwoi Chung)¹⁾

박경자(Kyung Ja Park)²⁾

ABSTRACT

This study employed a child-centered approach in the examination of patterns of preschooler's learning behaviors. A hierarchical cluster analysis was employed in order to discern a meaningful typology of such behavior. The subjects consisted of 232 children (117 boys, 106 girls) and their mothers from 6 kindergartens and 6 day care centers.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The cluster analysis yielded five types of learning behaviors; the competent type, the average type, the low attention/persistence type, the low motivation -attitude type, and the deficient type. The most consistent level differences among these types appeared to lie in distinctions among the average Attention/Persistence scores. The composition of the cluster types, including both the age and gender of the children, was ascertained. Our results indicated that preschool learning behavior types could be seen to differentially relate to children's self-regulation, cognitive styles, problem behaviors, and the level of maternal involvement. It was revealed that a child's characteristics was more important than maternal involvement and beliefs. As there were more girls and older children in the learning type, this type was seen to be more competent.

Key Words : 학습행동 유형(learning behaviors type), 자기조절(self-regulation), 인지 양식(cognitive style), 문제행동(problem behaviors), 어머니의 학습지원 행동(maternal involvement), 어머니 양육신념(mother's belief).

* 본 논문은 2010년도 연세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의 일부임.

¹⁾ 전주기전대학 유아교육과 전임강사

²⁾ 연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Corresponding Author : Tae Hwoi Chung, Department of Early Childhood Education, Jeonju Kijeon College, Jeonju 560-701, Korea
E-mail : taehwoi@kijeon.ac.kr

I. 서 론

현대 사회에서 유능한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은 다양하지만, 많은 부모와 교사가 관심을 갖는 것 중의 하나는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무엇을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오늘날 학업 생활에 대한 관심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국가수준 기초학력 진단평가 실시나 미국의 초·중등교육개혁법(No Child Left Behind Act; NCLB) 제정에서 볼 수 있듯이 국가수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학업에 대한 관심은 그 대상이 점차 낮아져 초등학교 입학 전 유아에까지 이르게 되어 미국의 경우 초·중등교육개혁법에서 아동 초기 및 공교육으로의 전환기의 유아의 발달이 이후의 성공에 중요한 것으로 간주하며 유아의 학습준비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다(Coolahan, Fantuzzo, Mendez, & McDermott, 2000),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최근 교육인적자원부(2009)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 영유아가 교육효과가 가장 높은 시기임을 밝히고 있다.

성공적인 학업 생활을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에 대한 해답의 하나로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2009)는 유아교육 선진화 추진 계획에서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기초학습능력, 자기관리능력 등 유아기에 강조해야 할 핵심역량을 초·중등학교 핵심역량과 연계해야 함을 언급하였다. 또한 미국의 국가교육목표패널(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NEGP)은 우선적인 포괄적 교육목표로서 유아가 학교와 학습에 건강하게 잘 준비되어 공교육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1). 이에 따라 NEGP는 초기 학습의 다섯 가지 차원으로서 신체적인 안녕과 운동발달, 사

회·정서적 발달, 언어발달, 인지와 일반상식, 그리고 학습에 대한 접근을 들고 있다(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9).

유아기는 유아가 삶의 성공과 이후 학교생활에 필수적인 사회·정서적 기술을 발달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시기이다. 취학 후의 학업 성취는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이전에 발달된 유능성에 의해 좌우된다(Jimerson, Egeland, Sroufe, & Carlson, 2000). 특히 유아들이 보이는 인지능력이나 학습준비도 수준은 취학 후의 학업성취 수준을 예측한다(Tramontane, Hooper, & Selzer, 1988). 이는 유아에게 초등학교 입학 전에 학습과 관련된 기술이나 행동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Swift와 Spivack(1969)은 IQ를 통제된 후 주의 집중을 잘하고 독립적이며, 과제 지향적인 행동을 보인 아동이 높은 학업성취를 보이는 것을 보고, 이러한 특성을 학습행동이라 지칭하였다(McKinney, Mason, Perkerson, & Clifford, 1975, 재인용). 즉, 학습행동은 아동이 학습과제에 참여할 때 나타내는 관찰 가능한 행동유형과 특성으로서, 학교에서의 학업성취에 있어 상당부분을 설명해준다(Barnett, Bauer, Ehrhardt, Lentz, & Stollar, 1996). 학습행동은 단순히 국어, 수학, 과학, 사회 등 교과목에 대한 학업적 지식을 배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해결전략, 융통성, 과제에 대한 주의집중과 지속, 그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고, 스스로 해보고, 도움을 허용하려는 의지, 활동에 대한 흥미 등을 갖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학습행동은 학습동기, 주의 집중과 지속, 학습태도를 포함하는 것이다.

유아의 학습행동과 관련된 연구로는 문식성 발달과의 관계(안선희, 2005), 취학 후 아동의 학교 적응과의 관계(박희숙, 2008a), 척도 개발 및 타당화(곽아정·이기숙, 2005; 박희숙, 2008b),

부모양육과의 관계(송진숙·권희경, 2007),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환경 자극에 대한 인과적 구조분석(박희숙, 2008c), 또래 놀이행동과의 관계(정선교·안선희, 2006)가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 학습행동과 관련된 연구는 그 수도 많지 않고, 연구자에 따라 학습행동을 상이하게 정의내리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동기, 주의/지속, 학습태도로 구성되는 유아의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유아 측면과 어머니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유아 측면에서는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의 구성요소의 하나인 자기조절을 살펴보고자 한다. Bodrova와 Leong(1996)은 자기조절을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적절하게 계획하고, 점검하고, 평가하고, 선택하는 것과 같은 복잡한 인지적 조작을 수행하는 능력으로 보았다. 학습은 외부의 영향에 의해 완전히 통제될 수 없고 항상 자기조절적 요소를 포함하는데, 이러한 자기조절적 요소들이 학습능력과 성취수준과도 관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성취수준이 높은 유아와 낮은 유아간의 주요 차이는 유아가 어느 정도 독립적이며 자기조절적인 학습자인가에 달려 있다(Harris & Graham, 1992). Zimmerman과 Martinez-Pons(1988)는 자기조절학습전략에 관한 타당성 연구를 위한 후속연구에서 자기조절학습의 하위요인들은 학업성취와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학업성취 변량의 약 80%까지 설명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주의집중과 지속 같은 학습행동의 인지적 측면을, 상황 속에서 얻는 외부정보를 조직하고 범주화하는 방식인 인지양식과의 관계에서 고려해 볼 수 있다. 유아가 특정상황을 인지하는 방식은 개인차가 있고, 특정상황에서 보여주는 각기 다른 방법의 자극선택, 지각, 조직화는 사태에 접근하는 독특한 양식인 인지양식을 구성

한다(Witkin & Goodenough, 1977). 그리고 이러한 인지양식은 유아의 행동이나 대처방식에 따른 해결과정과 결과를 통해 유아의 정서와 행동에 또 다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즉 상황에 대한 인지양식이 주관적이며 분석적인 장 독립적 인지양식인지, 배경에 의존하여 비주관적이며 전체적인 인지를 하는 장 의존적 인지양식인지에 따라 유아의 학습행동은 차이가 있을 것으로 유추된다.

유아의 문제행동이란 사회 및 정서 발달상에 나타나는 내면화된 또는 외면화된 역기능을 지칭하는 것으로, 유아에게 문제행동은 흔히 나타나며 이 문제들은 그 종류나 정도에 있어 매우 다양하다. 도시 환경에서 소아과에 다니고 있는 5,000명 가량의 3세에서 5세 유아 표집에서 장애에 대한 진단 준거에 속하는 행동문제를 지닌 유아가 21.4%로 나타났다(Lavigne, Gibbons, Cristoffel, Arend, Rosenbaum, Binns, Dawson, Sobel, & Issacs, 1996). Campbell(1995)은 연구에서 5명의 유아들 중 1명이 정서적 문제와 행동적 문제를 나타내고 문제 행동을 지닌 유아의 대략 50% 가량이 초등학교에서도 문제를 지속할 것이라는 연구결과를 얻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대단위로 표집된 유아의 문제행동의 유형률과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유아를 대상으로 한 황혜정, 윤명희, 강성변, 성낙운과 황혜신(2002)의 연구에서는, 3~7세 유아 중 4.5%가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초등학교의 경우 적어도 연구대상 아동의 10% 정도가 문제행동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오경자·이혜련·홍강의·하은혜, 1991). 문제행동을 지닌 유아는 신체적, 사회적, 개인적 상황 등의 여러 측면에서 적응상의 문제를 나타내며 다양한 부적절한 행동을 통해서 자신과 학습 환경

사이에 장벽을 만들기도 한다(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 1989).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 행동이 유아 학습행동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교육인적자원부의 2006년 초등학교 3학년 19,056명을 대상으로 한 기초학력 진단평가 결과 발표 자료에 따르면, 기초학력에 영향을 미치는 배경변인 분석 결과, 교사에게 칭찬을 많이 받을수록, 학교생활에 흥미가 많을수록, 부모와의 대화를 자주 나눌수록, 학습 준비물을 잘 챙기는 학생일수록 기초학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른 사람(과외나 학원선생님 등)의 도움을 받는 학생보다는 혼자서 숙제를 해결하고, 부모가 숙제를 확인해 주는 학생일수록 기초학력 점수가 높게 나타났다(교육인적자원부, 2007). 즉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이 자녀의 학업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학습지원행동은 가정 및 학교에서 자녀의 학습과 관련되어 행해지는 지원행동으로서, 가정에서의 긍정적인 학습환경 조성 및 자녀 학습활동 도움주기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학습행동에 어머니의 학습지원행동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같은 부모의 행동들이끄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부모의 신념을 들 수 있다. 부모의 신념이란 아동 양육에 관련된 내용에 대한 지식과 방법에 대한 지식이 통합된 실세계에 대한 재구성이라 정의할 수 있다(Sigel, 1985).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양육행동과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대한 신념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어머니들이 자녀의 발달 목표로서 인성과 지적 성취 중 어느 측면을 더 중요시하는지와, 자녀의 발달에 있어 성숙의 영향과 환경의 영향 중 어느 것을 더 중요시 하는가에 대한 신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학습동기는 부모나 교사에 의해 직접 가르쳐지기도 하지만 가정과 학교, 사회에서 모방과 사회화과정을 거쳐 발달한다(Brophy, 1998). 구체적으로 말하면 부모와 교사, 친구 등 중요한 타인으로부터 받는 직접적 지시, 기대, 피드백, 상과 벌 등을 통하여 서서히 발달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양육신념이 유아의 학습행동에 영향을 줄 것이라 유추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습에 대한 접근, 즉 유아가 학습과제에 참여할 때 나타내는 관찰 가능한 행동유형과 특성으로서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의 학업성취와 높은 관련이 있는 학습행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한 변인중심 접근법이 아닌 개인 중심 접근법을 사용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변인중심 접근법이 유아의 학습행동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인을 알아보는 것이라면, 개인중심 접근법은 유아의 학습행동의 특정한 유형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유아 학습행동의 하위 요인인 학습동기, 주의/지속, 학습태도에 따라 유아의 학습행동이 어떻게 유형화되는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유아의 자기조절능력 과 인지양식, 문제행동,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학습지원행동을 중심으로 서로 다른 학습행동 유형의 유아들을 위한 중재 전략을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에 따라서 제기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유아의 학습행동은 어떻게 유형화되는가?

<연구문제 2> 유아의 학습행동 유형에 따라 유아의 자기조절, 인지양식, 문제행동과 어머니의 양육신념, 학습지원행동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전주시에 있는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만 5세아 12학급에서 선정된 만 5세아 122명(남아 69명, 여아 53명)과 만 6세아 101명(남아 48명, 여아 53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유아의 성별 구성은 남아 117명(52.5%), 여아 106명(47.5%)으로 남아가 약간 더 많았고, 유아의 평균 월령은 남아 72.0개월, 여아 72.2개월이었다. 본 연구의 대상인 아동의 부모에 대한 의 인구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2. 연구도구

1) 유아 학습행동

유아의 학습행동은 McDermott, Green, Francis와 Stott(2000)가 개발한 유아 학습행동 평정척도(Preschool Learning Behaviors Scale : PLBS)를 정선교와 안선희(2006)가 번안, 수정한 것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척도는 학습동기, 주의와 지속, 학습태도의 3개 하위요인에 대한 총 24개의 문항으로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학습동기는 유아가 학습 관련 활동을 하는데 있어 어떤 식으로 접근하는가에 관한 내용으로, 새로운 활동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는 것, 활동을 하는데 관심을 보이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 이 요인에 포함된다. 주의/지속은 유아가 활동을 하는데 주의를 지속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충분한 생각을 하고 활동하는 것, 다른 사람의 말에 집중하는 것과 같은 행동들이 이 요인에 포함된다. 학습태도는 유아가 활동할 때 협동하고 도움을 기꺼이 받아들이는 경향에 관한 내용으로, 협동을 잘 하는 것, 좌절했을 때 공격적이지 않는 것

<표 1> 연구 대상 유아 부모의 인구학적 배경 (N = 223)

변 인	아버지(%)	어머니(%)
연령		
20대	1(0.4)	13(5.8)
30대	146(65.5)	183(82.1)
40대	68(30.5)	25(11.2)
50대 이상	3(1.3)	2(0.9)
무응답	5(2.2)	0(0)
학력		
고졸 이하	58(26.0)	77(34.5)
초대졸	43(19.3)	60(26.9)
대졸	104(46.6)	78(35.0)
대학원 이상	13(5.8)	8(3.6)
무응답	5(2.2)	0(0)
직업		
전문직	21(9.4)	29(13.0)
사무직	113(50.7)	31(13.9)
제조업	0(0)	0(0)
자영업	53(23.8)	20(9.0)
판매·서비스직	20(9.0)	6(2.7)
생산·단순직	9(4.0)	1(0.4)
무직·전업주부	1(0.4)	117(52.5)
기타(시간제 아르바이트 등)	1(0.4)	19(8.5)
무응답	5(2.2)	0(0)
가구 월수입		
200만원 이하	41(18.4)	
201-300만원	65(29.1)	
301-400만원	62(27.8)	
401-500만원	26(11.7)	
500만원 이상	28(12.6)	
무응답	1(0.4)	

등이 포함된다. 본 연구에서의 산출된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는 학습동기 .89, 주의/지속 .91, 학습태도 .81로 나타났다.

2) 자기조절

자기조절은 이정관(2003)이 개발한 유아의 자기조절 평가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도구는 유아가 자신의 행동을 상황에 맞춰 적절히

조절하고, 자율적이고 융통성 있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서 부모가 5점 척도로 평가하는 척도이다. 유아의 자기조절 평가도구는 자기점검과 자기통제의 두 요인으로 이루어져 있다. 자기점검은 자신의 인지과정 또는 인지활동을 스스로 계획, 평가, 점검하는 능력으로 상위 인지적 능력을 필요로 하며, 자기통제 요인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행동을 억제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 정서를 억제하는 능력으로 기억이나 회상능력과 같은 인지능력을 요구한다. 자기점검은 자기평가(5문항)와 자기결정(9문항)으로 구성되고 자기통제는 행동억제(10문항)와 정서성(7문항)으로 구성되어 총 3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산출된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는 자기평가 .83, 자기결정 .88, 행동억제 .86, 정서성 .84로 나타났다.

3) 인지양식

유아의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Coates (1972)가 개발한 유아용 숨은 그림 찾기 검사(Preschool Embedded Figure Test : PEFT)를 전윤식(1984)이 우리나라 유아들에 맞게 표준화시킨 유아용 잠입도형 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3세에서 취학 전 연령에 해당되는 유아의 장 독립적-장의존성 인지양식을 측정하기 위하여 개발된 것으로, 유아가 흥미를 가질 수 있는 흑백 선형 그림 속에 숨어 있는 정삼각형을 찾으려는 과제들로 구성된 개인별 검사이다. 검사는 3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유아와의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예비 과제 1개, 정삼각형이 그려 있는 3개의 그림이 제시된 연습문제, 24개의 그림이 제시된 본 검사 문제 등 총 28장의 그림카드로 되어있다. 총점은 옳은 반응의 합으로서 검사문제가 24개 항목이므로 점수의 범위는 0점~24점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가 장독립적인

인지양식을 지니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4)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McGuire와 Richman(1988)의 유아행동목록척도(Preschool Behavior Checklist : PBCL)를 황혜정(1998)이 번안한 것으로 측정하였다. 본 도구는 만 2~5세 유아를 대상으로 정서 및 행동 문제를 평정하기 위한 도구로 품행문제, 정서적 문제, 사회적 관계의 문제, 집중하여 건설적으로 놀이하는 능력, 발버둥치며 떼쓰기, 언어, 습관, 대소변 문제 등의 6개 하위영역의 22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은 3점 척도로 이루어졌고, 교사가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유아행동목록척도의 내적 합치도 Cronbach α 는 .82로 나타났다.

5) 어머니의 양육신념

어머니의 양육 신념에 관한 도구는 이원영(1983)의 '자녀 교육관', 김지신(1996)의 '어머니의 전통-근대 가치관' 그리고 Segal(1985)의 'Maternal Beliefs and Values Q-sort' 등의 문항에서 선택한 문항을 안지영(2001)이 수정 보완하여 개발한 어머니의 양육 신념 질문지를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내용은 만 4, 5세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내용으로서, 자녀 양육 목표로 인성-학습 성취 강조 신념을 묻는 문항 12개와 자녀의 발달에 대한 영향력으로서 성숙/환경주의 신념을 중심으로 구성된 9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문항에 대해 어머니는 자신의 의견에 가까운 내용을 선택하고, 그 가까운 정도를 7점 척도로서 표시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산출된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는 인성-학습 성취 강조 .81, 성숙주의-환경주의 .80으로 나타났다.

6) 어머니의 학습지원행동

어머니의 학습지원행동을 알아보기 위해 Fantuzzo, Tighe, Childs(2002)의 부모 참여 질문지(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 FIQ)를 문은식과 김충희(2003)가 초·중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한 것을 원척도를 참고로 하여 유아에 맞춰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질문지의 하위요인은 어머니의 학교 행사 참여 활동과 관련된 학교중심 학습지원 행동, 가정에서 자녀의 학습과 관련된 가정중심 학습지원 행동, 아동의 교육적 경험과 성취에 관한 학부모와 교사 간의 상호작용 정도를 의미하는 가정-학교상호작용 학습지원 행동이 있으며 각 문항은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산출된 하위 요인별 Cronbach α 는 학교중심 .76, 가정중심 .76, 가정-학교 상호작용 .85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예비 조사는 2009년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전주시에 위치한 A 유치원에서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만 5세 유아 17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예비 조사를 통해 연구절차를 점검하고 연구도구의 적절성을 점검해 보았다. 자료를 수집하기에 앞서 유아교육 전공 연구보조사 2인을 대상으로 유아용 잠입도형검사 실시 요령 및 주의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본 조사는 2009년 7월 13일부터 31일까지 3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기관별로 본 조사는 1~2일에 걸쳐 실시되었다. 본 연구자와 연구보조사 2인이 기관을 방문하여 어머니용 질문지와 교사용 질문지를 학급교사에게 배부한 후, 연구보조사 2명이 해당 학급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용 잠입도형검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학급 유아가 조사 당일 결석한 경우 재 방문하여 유아용 잠입

도형검사를 실시하였다. 부모용 질문지 및 교사용 질문지는 각각 256부를 배부하였고 그 중 239부가 회수되어 93.4%의 회수율을 보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어머니용 질문지와 유아용 질문지가 함께 있어야 분석이 가능하므로 어머니 질문지가 회수되지 않은 경우와 회수 되었더라도 응답내용이 불충분한 경우를 제외하고 총 223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다.

4. 자료처리 및 분석

유아 학습행동에 따른 유아 학습행동 유형을 산출하기 위해 군집 분석을 실시하였고, 유아 학습행동 유형별로 학습행동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그리고 유아 학습행동 유형별로 유아 변인과 어머니 변인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하고 Scheffe의 사후검증을 이용한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유아의 성과 연령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유아학습행동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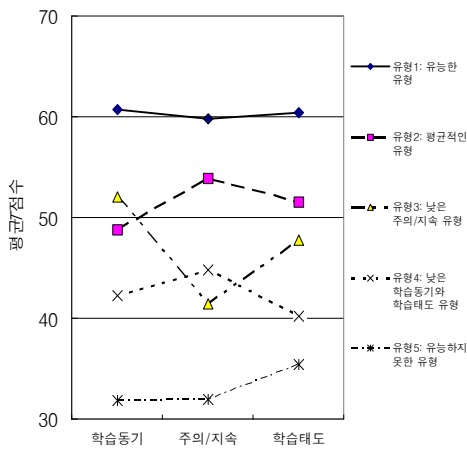
유아의 학습행동 유형을 추출하기 위하여 유아 학습행동 하위 요인에 대한 위계적 군집분석에서 Ward의 방법을 사용하여 적절한 군집수를 확인한 후, K-means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군집분석 결과 5개의 학습행동 유형이 산출되었는데 이는 표 2와 같고, 이를 그림 1로 도식화 하였다.

산출된 5가지 유아 학습행동 유형은 각각 “유

<표 2> 유아 학습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 학습행동 평균과 표준편차 (N = 223)

	1 (n = 70) M(SD)	2 (n = 57) M(SD)	3 (n = 31) M(SD)	4 (n = 42) M(SD)	5 (n = 23) M(SD)
학습동기	60.69(2.46)	48.75(5.26)	52.08(4.53)	42.27(4.39)	31.85(4.77)
주의/지속	59.75(3.68)	53.85(3.88)	41.41(5.58)	44.78(3.71)	31.89(4.50)
학습태도	60.39(3.06)	51.57(5.07)	47.73(5.45)	40.25(4.79)	35.36(8.26)
학습행동 총점	61.27(2.32)	51.42(2.96)	46.83(2.79)	42.06(2.95)	30.97(4.59)

* 제시된 평균값은 T점수로 변환된 것임(M = 50, SD = 10).



<그림 1> 유아 학습행동 유형에 따른 학습행동 평균

능한 유형”(31.4%), “평균적인 유형”(25.6%), “낮은 주의/지속 유형”(13.9%), “낮은 학습동기와 학습태도 유형”(18.8%), “유능하지 못한 유형”(10.3%)의 5가지 유형으로 산출되었다.

2. 유아의 학습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 변인과 어머니 변인 특성

유아 학습행동 유형에 따라 유아 변인과 어머니 변인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일원변량분석 및 Scheffe의 사후검증 방법에 따라 살펴본 결과는 표 3과 같다.

유아의 자기조절능력의 경우 유능하지 못한 유형에 속한 유아들이 다른 학습행동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보다 자기평가($F = 8.45, p < .01$), 자기결정($F = 9.05, p < .01$), 행동억제($F = 4.44, p < .01$), 정서성($F = 5.53, p < .01$) 등 모든 하위 영역에서 평균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인지 양식에서는 유능한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이 유능하지 못한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보다 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보다 장독립적인 것으로 나타났다($F = 2.86, p < .05$). 그리고 유아 문제행동의 경우 유능한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과 평균적인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이 교사로부터 문제행동이 가장 적은 것으로 평가되었고, 낮은 주의/지속 유형, 낮은 학습동기와 학습태도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이 다음으로 문제행동이 적게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고, 유능하지 못한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이 가장 문제행동을 많이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F = 33.87, p < .01$). 어머니의 양육신념에 대해서는 학습행동 유형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어머니의 학습지원행동에서는 어머니의 학교중심 학습지원행동에서만 유능한 유형에 속한 유아와 유능하지 못한 유형에 속한 유아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F = 2.97, p < .05$).

표 3에 제시된 점수와 사후 검증 결과에 따라 유아 학습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의 특성을 살펴

<표 3> 유아 학습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 변인과 어머니 변인의 특성 (N = 223)

	유능한 유형 (n = 70) M(SD)	평균적인 유형 (n = 57) M(SD)	낮은 주의/지속 유형 (n = 31) M(SD)	낮은 학습 동기와 학습 태도 유형 (n = 42) M(SD)	유능하지 못한 유형 (n = 23) M(SD)	F
유아자기조절능력						
자기평가	21.89 ^a (3.00)	22.04 ^a (2.86)	20.58 ^a (3.51)	20.43 ^a (3.10)	18.04 ^b (3.79)	8.45**
자기결정	32.60 ^a (5.49)	33.70 ^a (6.18)	30.90 ^a (6.01)	30.26 ^a (6.43)	25.35 ^b (6.18)	9.05**
행동억제	36.36 ^a (6.54)	37.46 ^a (7.13)	34.13 ^{ab} (6.95)	34.14 ^{ab} (7.15)	31.22 ^b (5.85)	4.44**
정서성	24.54 ^a (5.53)	25.16 ^a (4.73)	23.51 ^a (3.91)	23.71 ^a (4.72)	19.73 ^b (4.39)	5.53**
유아인지양식	20.01 ^a (2.25)	18.87 ^{ab} (3.07)	18.65 ^{ab} (3.96)	19.59 ^{ab} (3.64)	17.73 ^b (3.99)	2.86*
유아문제행동	1.61 ^a (1.41)	1.93 ^a (1.99)	5.00 ^b (4.47)	4.02 ^b (3.69)	9.43 ^c (4.95)	33.87**
어머니 양육신념						
인성-학습	27.99 (10.44)	27.53 (9.77)	26.35 (8.32)	27.88 (10.20)	28.65 (10.49)	.22
성숙/환경	40.19 (9.86)	43.79 (10.25)	42.41 (9.42)	38.14 (10.56)	39.61 (8.65)	2.38
어머니 학습지원행동						
학교중심	25.26 ^a (4.04)	24.58 ^{ab} (3.87)	23.55 ^{ab} (3.47)	23.52 ^{ab} (3.98)	22.65 ^b (3.01)	2.97*
가정중심	37.66 (3.68)	38.29 (3.80)	37.29 (3.57)	36.36 (3.09)	37.17 (3.82)	1.85
가정-학교 상호작용	29.96 (3.94)	28.81 (5.06)	28.94 (4.01)	27.71 (3.26)	28.17 (4.22)	2.15

* $p < .05$. ** $p < .01$. a, b, c는 Scheffe의 사후검증 결과 구분임.

보면, 유능한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은 전반적으로 교사에 의해 자기조절 능력이 높고, 문제 행동을 거의 보이지 않는다고 평가되었고, 장독립적인 인지 양식을 갖고 있으며, 유아의 어머니가 학교행사 참여활동 및 학습과 관련하여 교사와의 상호작용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인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의 경우 자기

조절능력이 높고, 문제행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는 보다 평균적인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인지양식이 다소 장의존적인 경향이 있고, 유아의 어머니가 성숙보다는 환경이 자녀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주의/지속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은 평균

<표 4> 유아학습행동 유형에 따른 유아의 성과 연령의 차이 (N = 223)

	유능한 유형 (n = 70) n(%)	평균적인 유형 (n = 57) n(%)	낮은 주의/지속 유형 (n = 31) n(%)	낮은 학습 동기와 학습 태도 유형 (n = 42) n(%)	유능하지 못한 유형 (n = 23) n(%)	계
유아 성별 ¹						
남 아	35(29.9)	21(17.9)	24(20.5)	22(18.8)	15(12.8)	117(100)
여 아	35(33.0)	36(34.0)	7(6.6)	20(18.9)	8(7.5)	106(100)
유아 연령 ²						
만 5세	38(31.3)	23(18.9)	19(15.6)	25(20.5)	17(13.9)	122(100)
만 6세	32(31.7)	34(33.7)	12(11.9)	17(16.8)	6(5.9)	101(100)

¹ $\chi^2(df = 4) = 14.99^{**}$, ² $\chi^2(df = 4) = 9.11$, $^{**}p < .01$.

적인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 조절능력 중 자기결정과 행동억제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로부터 문제행동이 더 많다고 평가되었다.

낮은 학습동기와 학습태도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은 능숙한 학습유형에 속한 유아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조절능력 중 자기결정이 의미 있게 낮고, 교사가 관찰하는 문제행동 역시 의미 있게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유아의 어머니가 다른 학습행동 유형과 비교 시 자녀의 발달에 성숙이 더 영향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능하지 못한 유형에 속하는 유아들은 낮은 학습동기와 학습태도 학습행동 유형에 속한 유아들과 비교했을 때 자기조절능력 중 자기평가, 자기결정, 정서성이 모두 의미 있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교사가 관찰하는 문제행동도 의미 있게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어머니가 다른 학습행동 유형과 비교시 학교행사 참여활동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성별과 유아 학습행동 유형 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χ^2 검증을 실시한 결

과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났고($\chi^2 = 14.99$, $p < .01$). 연령에 따라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표 4 참조). 유아의 성별에 따라 학습행동 유형을 살펴보면 낮은 주의/지속 유형, 그리고 유능하지 못한 유형은 남아가 더 많고 유능한 유형과 평균적인 유형은 여아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 연령과 유아 학습행동 유형 간에는 의미 있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IV.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유아의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인 중심적 접근법을 사용하였다. 즉, 유아의 학습행동의 특정한 유형을 나타내는 유아에 대한 정보를 산출하여 서로 다른 유아 집단에 대한 중재 전략을 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학습동기, 주의/지속, 학습태도에 따른 유아 학습행동 유형을 산출하고, 이에 따라 자기조절 능력과 인지양식, 문제행동, 그리고 어머니의 양육신념과 학습지원행동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를 중심으로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유아 학습행동유형은 학습행동의 하위 요인중 주의/지속에서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 학습행동 유형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 주의/지속은 학습행동의 하위 요인 중 가장 안정적이고, 초등학교 입학 이후의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주의력은 정보처리의 첫 단계이므로 주의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으면, 다른 인지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기 어렵다. Abikoff(1991)는 주의집중과 학업성취의 관계에 관한 연구에서 주의집중을 잘 못하는 유아들이 학업성취 수준이 낮았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학습행동의 하나인 주의집중이 학업성취를 예언하는 요소임을 말해준다. Fantuzzo, Perry, 그리고 McDermott(2004)의 연구에 따르면 학습행동의 하위 요인 중 유아가 초등학교에 입학 후의 학업적 성취를 예언하는 것은 주의/지속으로 나타났고, 1,665명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 Angelo(2006)의 종단적 연구결과에서도 주의/지속이 초등학교 1학년의 학업 성취를 예언하며, 학습행동 하위 요인중 가장 안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주의/지속에서 나타난 뚜렷한 차이는 문제행동 중 주의산만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주의산만은 학령기 아동의 약 2~9%, 소아정신과 내원환자의 8.7% 이상의 높은 유병률이 보고되고 있는 심각한 문제행동으로서 특히 주의 집중력 부족 등으로 인하여 학령기의 학업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오원숙·박은숙, 2007).

유아 학습유형 중 주의/지속의 점수가 다른 유형의 유아들 보다 낮게 나타난 낮은 주의/지속 유형과 유능하지 못한 유형에 속한 유아의 경우, 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많이 보인다고 평가하였다. 다른 학습유형과 비교했을 때 유능하지

못한 유형과 낮은 주의/지속 유형을 구성하는 유아 중 남아의 비율이 각각 65.2%, 77.4%로 높게 나타났다. 때문에 유아 학습행동 유형 간의 유아의 성에 따른 차이를 그 원인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아의 성별에 따라 문제행동의 양상에서 차이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에서 여아보다는 남아에게서 문제행동이 많이 발생한다고 보고하고 있다(Kazdin, 1995). 세부적인 양상에서 여아는 슬픔, 불안이나 위축과 같은 내재화된 문제행동을 남아보다 많이 보이는 한편,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공격행동과 관련된 외현화 문제행동은 남아가 더 많이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다수를 이루고 있다(이경숙 등, 2004). 특히 본 연구에서도 낮은 주의/지속 학습행동 유형의 경우 남아의 비율이 다른 학습유형에 비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이 이를 지지한다고 볼 수 있다. 성별 구성 비율을 살펴보면, 낮은 주의/지속 학습행동 유형과 학습행동 유형중 가장 학습행동 점수가 낮게 나타난 유능하지 못한 유형의 경우 다른 학습행동 유형과 비교시 남아의 비율이 높았다.

본 연구대상 유아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학습행동과 의미있는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고, 학습행동에 대한 설명력도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의 발달에 있어서 양육신념은 양육태도에 반영되며 구체적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더라도 상황에 따라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 이는 부모신념이 겉으로 드러나는 양육태도에 영향을 주어 유아의 발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Darling과 Steinberg(1993)는 부모가 지향하는 양육목표와 가치가 부모의 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만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의 행동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어머니의 양육신념은 직접적으로 유아의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어머니의 학습지원 행동을 통해 간접적으로 유아

의 학습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습행동은 학령기 아동의 학업 실패와 부적응에 대해 보호적 요인이 되기 때문에(McDermott & Fantuzzo, 2000), 유치원과 초등학교의 적응에 있어서 중요한 중재요인이다(Reynolds, 1991). 또한 학습행동은 실제로 교수가 가능하고 변화가능하며(McDermott, 1984; Scheafer & McDermott, 1999), 전통적으로 학업성공에 관련된 요인으로 간주하는 지능보다 중재에 사용하기 용이하고(McDermott, 1999), 학습행동 증진에 필수적인 교수 전략과 교구교재를 유아교육기관 학급에서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본 연구에서 추출된 학습행동 유형별 특성에 따르면 과제에 대한 주의 집중 및 지속이 낮고, 남아가 많으며, 유의한 차이는 아니지만 낮은 연령의 유아가 많은 특성을 지닌 낮은 주의/지속 유형과 유능하지 못한 유형이 우선적인 중재가 필요한 집단으로 간주된다. 2009년 11월 25일 미래기획위원회에서 발표한 ‘이명박 정부의 저출산 대응전략’에 따라 초등학교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겨 육아비용을 경감하고 조기에 사회 진출을 하도록 돕는다는 방안을 실시할 경우, 초등학교 학급은 낮은 주의/지속 유형이나 유능하지 못한 유형의 아동 집단을 형성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안보다는 미국의 국가교육목표패널에서 우선적인 포괄적 목표로서 유아가 학교생활과 학습에 준비가 잘 된 상태에서 학교에 입학할 것을 강조하는 바와 같이 중재를 필요로 하는 유아 집단에 대한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의 실시가 앞서야 할 것이다. 중재 프로그램은 전통적인 학업 영역에서의 아동의 능력에만 근거하는 것이 아닌 학습행동을 증진시킬 수 있는 교육적 중재 프로그램이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유아교육기관에서 초기 문해와 수와 같은 다른 영역에 유아

학습행동에 대한 내용을 자연스럽게 연결시키는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교육과정 및 구조화된 학습활동, 놀이, 그리고 행동 수정(Barnett et al., 1996)을 사용할 수 있다. 즉, 일상적인 일과를 통해 학습행동을 강화하고 소개함으로써 유아에게 학습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고, 유아 학습행동을 교육시키고 지지하는 것은 가정에서의 활동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유아는 학습과제에 참여하는데 있어 흥미와 동기를 지니고, 학습활동을 완수하기 위한 주의집중과 지속을 높이며, 교사 및 또래와 협동적이고 지지적인 행동을 학급내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학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다. 학습행동은 유아의 다른 행동과 학업적 유능성의 발달을 증진시킬 수 있는 핵심적인 변인으로서, 유아교육기관에서 학습행동에 대한 교육과 강화는 유아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입학 후의 수행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을 제시하면서 동시에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먼저 본 연구는 한 시점에서 변인들 간의 관계를 조사한 연구이다. 따라서 유아 학습행동과 관련된 변인들의 변화의 방향이나 인과관계를 정확히 검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인 설계 또는 실험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는 유아와 어머니만을 연구변인으로 선택하였다. 이 중 어머니 학습지원행동의 경우 유아교육기관을 통해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기 때문에 어머니 보고에서 사회적인 바람직성이 개입되었을 수 있다. 따라서 어머니 학습지원행동의 경우 면접 등의 다른 조사 방법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추후 연구에서는 유아, 어머니 외에 또래관계, 교사관계, 그리고 유아교육기관 환경 등이 포함된 포괄적인 연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인적자원부(2007).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7. 7. 10.
- 교육인적자원부(2009). 교육인적자원부 보도자료, 2009. 12. 9.
- 곽아정 · 이기숙(2007). 유아의 학습과 관련된 사회적 기술 척도의 타당화 및 학습 능력과의 관계. **유아교육연구**, 27(3), 61-92.
- 문은식 · 김충희(2003) 부모의 학습지원행동과 초 · 중학생의 학업동기 및 학업성취도의 관계. **교육심리연구**, 17(2), 271-288.
- 박희숙(2008a). 유아 학습관련 기술 평정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유아교육연구**, 28(4), 243-263.
- 박희숙(2008b). 유아 학습관련 기술이 취학 후 아동의 학교적응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단기종단 연구. **아동학회지**, 29(6), 73-86.
- 박희숙(2008c). 유아 학습행동 관련변인의 인과적 구조 분석 :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과 가정환경 자극을 중심으로. **열린유아교육연구**, 13(6), 335-351.
- 송진숙 · 권희경(2007).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을 예언하는 부모양육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6(3), 535-545.
- 안선희(2005). 유아의 학습관련 사회적 기술과 문식성 발달과의 관계. **아동학회지**, 26(4), 173-188.
- 안지영(2001). 2-3세 자녀를 둔 어머니의 양육 신념, 효능감 및 스트레스가 양육 행동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오경자 · 이해련 · 홍강의 · 하은혜(1991). 문항분석을 통한 한국판 CCBCL의 임상 유용도 검증. **소아청소년 정신의학**, 2(1), 138-149.
- 오원숙 · 박은숙(2007). 주의력결핍 과잉행동장애 (ADHD) 아동 부모의 양육경험 : 정상에 다가가기. **대한간호학회지**, 37(1), 91-104.
- 이경숙 · 신의진 · 전연진 · 박진아(2004). 한국 유아 행동문제의 경향과 특성 :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7(4), 53-73.
- 이정란(2003). 유아의 자기조절 구성 요인 및 관련 변인에 대한 구조 분석. 덕성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 전윤식(1984). 한국유아용 잠입도형검사의 표준화 결과와 몇 개의 관련변인과의 관계. **사회조사연구**, 3(1), 103-118.
- 정선교 · 안선희(2006). 보육시설에 다니는 저소득층 유아의 또래 놀이행동과 학습 행동과의 관계. **미래유아교육학회지**, 13(4), 217-236.
- 황혜정(1998). '취학전 아동행동목록표(PBCL)' 기준 점수의 문화적 타당성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 발달**, 11(2), 154-165.
- 황혜정 · 윤명희 · 강성빈 · 성낙운 · 황혜신(2002). 유아용 문제행동 진단검사의 개발 연구. **유아교육연구**, 22(1), 73-88.
- Abikoff, H. (1991). Cognitive Training in ADHD Children : Less to it than Meets the Eye. *Journal of Learning Disabilities*, 24(4), 205-209.
- Angelo, L. E. (2006). Child-centered examination of preschool learning behavior : A typological investigation.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Pennsylvania.
- Bamett, D. W., Bauer, A. M., Ehrhardt, K. E., Lentz, F. E., & Stollar, S. A. (1996). Keystone targets for changes : Planning for widespread positive consequences.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1, 95-117.
- Bodrova, E., & Leong, D. J.(1996). *Tools of mind : A Vygotskian approach to Early Childhood Education*. Englewood Cliffs, NJ : Prentice-Hall.
- Brophy, J. E. (1998). *Motivating students to learn*. New York : McGraw-Hill.
- Campbell, S. B. (1995). Behavior problems in preschool children : A review of recent research. *Journal of Psychology and Psychiatry*, 36, 113-159.
- Coolahan, K., Fantuzzo, J., Mendez, J., & McDermott, P. (2000). Preschool peer interactions and readiness to learn : Relationships between classroom peer play, learning behaviors, and conduc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3), 458-465.

- Darling, N., & Steinberg, L. (1993). Parenting style as context : An integrative model. *Psychological Bulletin*, 113(3), 487-496.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DES). (1989). Special schools for pupils with emotional and behavioral difficulties, Circular, 23/89. London : HMSO
- Fantuzzo, J., Perry, M. A., & McDermott, P. (2004). Preschool approaches to learning and their relationship to other relevant classroom competencies for low-income children. *School Psychology Quarterly*, 19(3), 212-230.
- Fantuzzo, J., Tighe, E., & Childs, S. (2000). Family involvement questionnaire : A multivariate assessment of family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educ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92, 367-376.
- Harris, K. R., & Graham, S. (1992). Self-regulated strategy development : A part of the writing process. In M. Pressley, K. R. Harris, & J. Guthrie (Eds.). *Promoting academic competence and literacy : Cognitive research and instructional innovation*. New York : Academic Press.
- Jimerson, S., Egeland, B., Sroufe, L. A., & Carlson, B. (2000). A prospective longitudinal study of high school dropouts examining multiple predictor across develop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8, 525-549.
- Kazdin, A. E. (1995). Child, parent and family dysfunction as predictors of outcome in cognitive-behavioral treatment of antisocial children. *Behavior Research and Therapy*, 33 : 271-281.
- Lavigne, J. V., Gibbons, R. D., Cristoffel, K. K., Arend, R., Rosenbaum, D., Binns, H., Dawson, N., Sobel, H. & Issacs, C. (1996). Prevalence rates and correlates of psychiatry disorders among preschool children. *Journal of American Academy of Child and Adolescent Psychiatry*, 36, 204-214.
- McDermott, P. A. (1984). Comparative functions of preschool learning style and IQ in predicting future academic performanc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9, 38-47.
- McDermott, P. A. (1984). Comparative functions of preschool learning style and IQ in predicting future academic performance. *Contemporary Educational Psychology*, 9, 38-47.
- McDermott, P. A. (1999). National scales of differential learning behaviors among American children and adolescents. *School Psychology Review*, 28, 280-291.
- McDermott, P. A., & Fantuzzo, J. W. (2000). *Learning-in-time and teaching-to-learn : Study of the unique contributions of learning behaviors to school readiness* (Head Start-University Partnership Grant No. 90-YD-0080). Washington, DC :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Administration on Children, Youth, and Families.
- McDermott, P. A., Green, L. F., Francis, J. M., & Stott, D. H. (2000). *Preschool Learning Behaviors Scale*. Philadelphia : Edumetric and Clinical Science.
- McKinney, J. D., Mason, J., Perkerson, K., & Clifford, M. (1975). Relationship between classroom behavior and academic achievement.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7, 198-203.
-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1). The Goals 1 Technical Planning Subgroup report on school readiness. Washington, D.C. Author.
- National Education Goals Panel. (1999). The National Education Goals report : Building a nation of learners, 1999. Washington, DC :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Peth-Pierce, R. (2001). A good beginning : Sending America's children to school with the social and emotional competence they need to succeed. Monograph based on two papers commissioned by the Child Mental Health Foundations and Agencies Network (FAN). Chapel Hill, NC : University of North Carolina at Chapel Hill.

- Reynolds, A. J. (1991). Early schooling of children at risk.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Journal*, 28 (2), 392-422.
- Schaefer, B. A., & McDermott, P. A. (1999). Learning behavior and intelligence as explanations for children's scholastic achievement.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37, 299-313.
- Tramontane M. G., Hooper, S. R., & Selzer, S. C. (1988). Research on the preschool prediction of later achievement : A review. *Developmental Review*, 8, 89-146.
- Witkin, H. A., & Goodenough, D. R. (1977). Field dependence and interpersonal behavior. *Psychology Bulletin*, 84, 661-689.
- Zimmerman, B. J., & Martinez-Pons, M. (1988). Construct validation of a strategy model of student self-regulated learning.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80, 284-290.

2010년 10월 31일 투고, 2011년 1월 3일 수정
2011년 1월 11일 채택